

# 『시경』·「청묘」의 활용양상에 대한 연구

— 문집과 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상봉\*

- 
1. 들어가는 말
  2. 朝廷과 제사의 비유
  3. 對越在天의 응용
  4. 濟濟多士의 활용: 뛰어난 인재를 비유
  5. 나오는 말
- 

##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시경』의 「청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청묘」는 종묘 제례에서 사용되던 『시경』 〈頌〉의 첫 번째 작품으로, 그 내용은 문왕을 찬양하면서 제후들이 제사를 모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청묘」는 주로 조정과 제사를 비유하는 데 활용되었다. 「청묘」의 표현 중 제목이기도 한 ‘淸廟’는 조정을, “於穆淸廟”는 경건하고 조화로운 모습을 상징하며, 이는 주로 논어에서 ‘뛰어난 인재’로 사용된 ‘瑚璉’과 함께 쓰였다. 이러한 사용 예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다수 발견되며, 특히 조선 중종, 영조, 정조 등 여러 군주들이 “청묘”를 인용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제례를 엄숙하게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駿奔’은 제사를 모시는 행위를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다. 「청묘」의 “駿

---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E-mail: krishrama@hanmail.net

奔走<sub>在</sub>廟”에서 ‘준분’만을 추출해서 제사를 모시는 모습을 간결하게 묘사하였으며, 이는 주로 제례와 관련된 문헌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셋째, “對越在天”은 신하들이 임금에 권면하거나 칭찬할 때 자주 활용되었다. 이 표현은 신하들이 임금을 하늘에 비유하며 경의를 표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이는 조선시대 문집과 실록에서 흔히 발견되었다.

넷째, 「청묘」의 “濟濟多士” 구절은 뛰어난 인재를 비유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표현은 “제제다사” 전체를 사용하거나 ‘濟濟’나 ‘多士’만을 사용하여 인재의 풍부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쓰였다. 예를 들어, 문왕을 돕는 선비들이나 희공을 돕는 무관들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조선의 문인들이 인재를 칭송하는 문헌에서 자주 나타났다.

**주제어:** 시경, 청묘, 頌, 駿奔, 對越, 濟濟多士

## 1. 들어가는 말

우리 선조들은 중국에서 유학을 받아들인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詩經』을 한시의 감상과 창작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게다가 조선시대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의 대표 경전인 『시경』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한시를 공부하려는 문인들은 반드시 『시경』을 공부했다. 이처럼 『시경』은 우리의 고전 문학, 특히 한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한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경』을 우리 문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을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문인들이 『시경』에 수록된 개별 작품들을 어떻게 수용·활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찾고자 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조선왕조실록』에 인용된 『시경』 「문왕」편

의 활용사례 고찰」이 있다.<sup>1)</sup> 이 논문에서 정원호는 「문왕」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인용된 사례를 군주별·구절별로 데이터화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문왕」은 중종실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다음으로 영조·정조·세조의 순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했다.

인용된 구절의 경우에는 “濟濟多士, 文王以寧”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구절이 자주 인용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 논문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군주가 「문왕」을 인용한 경우와 신하가 「문왕」을 인용한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또 다른 선행연구로 한국 시화에서의 『시경』의 수용과 운용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2)</sup> 이 연구에서는 먼저, 시화 자료를 통해 여성층이 『시경』의 관용구를 암송 운용한 면모 및 문인 학자들의 『시경』 감상 활용에 대한 층차를 살피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한국 전통시대 『시경』 주석에서는 보기 드문 『시경』의 문학 감상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申景濬의 시론과 『靑邱韻鉢』의 편차를 예로 들어, 『시경』의 賦比興論 및 風雅頌 편차가 시화에서 논의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詩評者들이 전통 경학의 입장보다는 중국 시화에 반영된 관점을 수용하거나 『시경』에 대한 자의적 심득을 바탕으로 시화를 재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문인들이 시경에 수록된 개별작품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문왕」·「관저」·「녹명」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들 수 있다.<sup>3)</sup>

---

1) 정원호(2014), 참조.

2) 김수경(2018), 참조.

3) 이상봉(2024); 이상봉(2020a); 이상봉(2020b) 참조. 이 외에도 김수경(2021); 오종일(2004); 이병찬(1999); 이상봉(2023); 이상봉·유영옥(2022a; 2022b);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해서 『시경』 四始의 네 번째인 「頌」의 첫 번째 작품 「청묘」가 우리 문인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묘」는 시경 〈頌〉의 첫 번째 작품으로, 종묘 제례에서 사용되던 중요한 시다. 「청묘」는 문왕을 찬양하면서 제후들이 제사를 모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청묘」가 유교적 정치 이념과 제사 문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중요한 텍스트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래에서 살펴볼겠지만 「청묘」의 구절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다수 발견되며, 특히 조선 중종·영조·정조 등 여러 군주들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제례를 엄숙하게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청묘」는 조선시대 정치·문화·의례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활용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유교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주희의 『詩集傳』에 따르면 「청묘」는 주공이 낙읍을 완성한 뒤 제후들의 조회를 받고 문왕을 제사 지낼 때 연주한 樂歌라고 한다.<sup>4)</sup> 「청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깊고 그윽한 맑은 사당에, 공경하고 조화로우며 밝은 相과  
於穆清廟, 肅雝顯相.  
많은 선비들이, 문왕의 덕을 받들어  
濟濟多士, 秉文之德.  
하늘에 계신 분을 마주 대하고, 매우 분주히 사당에 모였으니,  
對越在天, 駿奔走在廟.

---

정원호(2015); 진재교(2008) 등의 선행연구는 이 논문과 관련이 있다.

4) 성백효(2004), 354~355면.

나타나지 아니할까, 받들지 아니할까<sup>5)</sup>,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음이 없으셨다.<sup>6)</sup>

不顯不承,  
 無射於人斯.

그러면 이런 「청묘」의 구절들이 우리 문인들의 시문에서 어떤 빈도로 활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자.<sup>7)</sup>

순서	구절	인용 횟수	순서	구절	인용 횟수	순서	구절	인용 횟수
1	於穆清廟 (清廟)	17 (356)	2	肅穆顯相	11	3	濟濟多士(濟濟)	59 (334)
4	秉文之德	16	5	對越在天(對越)	38 (164)	6	駿奔走在廟 (駿奔)	29 (102)
7	不顯不承	5	8	無射於人斯	3			

於穆清廟의 ‘清廟’와 같이 축약된 단어로 사용된 경우는 ( ) 안에 따로 표기했다. 위 표를 보면 「청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은 ‘濟濟多士(59)’이고 이어 對越在天(38)과 駿奔走在廟(29) 등이 자주 인용되었다. 축약된 경우로는 ‘清廟(356)’·‘濟濟(334)’·‘對越(164)’·‘駿奔(102)’의 순서로 자주 인용되었다.

「청묘」는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인들은 일반적으로 ‘清廟’를 가지고 王者의 太廟를 가리켰다.<sup>8)</sup> 그래서 문집과 실록에서 유난히 ‘청묘’가 많이 검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濟濟

5) 『경전석의』에서는 不를 丕의 뜻으로 보기도 한다. 정상홍(2019), 1110면 참조.  
 6) 번역은 성백효의 번역서에서 조금 윤색했다.  
 7)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를 이용해서 자료를 검색했고(2024년 3월 4일 기준) 검색의 빈도는 ‘고전번역서’에 사용된 용례에 한정했다.  
 8) 張維, 『谿谷集』(한국문집총간 92), 「荒山大捷碑, 次鄭湖陰韻」, 499면. “清廟萬年歌頌在, 豐碑更記武功揚.”; 金尙憲, 『清陰集』(한국문집총간 77), 「宣祖祔廟, 慈殿上號恭聖追崇, 奉慈殿移安後百官賀箋」, 200면. “孝隆奉先, 既嚴清廟之祔享.” 등에서 ‘清廟’를 ‘太廟’나 ‘宗廟’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多士의 경우, 「청묘」이외에 <大雅>의 「文王」과 <魯頌>의 「泮水」에도 등장한다. 『시경』 세 편의 시에서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므로 濟濟多士(濟濟)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된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청묘」 구절의 구체적인 인용의 사례를 보면 태묘의 享祀가 근엄하지 못하자 「청묘」의 「駿奔走在廟」 구절을 예로 들며 이를 개선하자는 논의도 있고,<sup>9)</sup> 당시의 음악이 너무 급하므로 「청묘」의 예와 같이 여유롭고 온화하게 길들여지도록 하자는 상소도 있으며,<sup>10)</sup> 殿試의 頌題로 「청묘」의 구절인 「濟濟多士, 秉文之德」을 출제하기도 했다.<sup>11)</sup>

이 외에 조정에서 종묘를 옮기는 논의가 있을 때, 「청묘」의 「於穆清廟」 구절을 예로 들어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sup>12)</sup> 종묘 고유제에 축문을 올리면서 「청묘」의 구절을 활용하기도 했다.<sup>13)</sup>

이와 같이 「청묘」는 조선의 왕실과 조정의 행사, 문인들의 시문 창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 
- 9) 영조 7년 신해(1731) 5월 8일(경오). 「진수당에서 소대를 행하는 자리에 참찬관 양정호 등이 입시하여 『동국통감』을 진강하고, 연관을 갖추는 일을 논의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참고. 이하 실록류 자료는 이 사이트를 참고 했다.
- 10) 정조 4년 경자(1780) 10월 16일(신유). 「대사헌 김하제가 제이를 해소할 대책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 11) 순조 4년 갑자(1804) 4월 4일(임술). 「춘당대에 나아가 문무과 殿試를 행하였다」. 이 외에도 1809년 증광시 복시 시제에서 「清廟之瑟, 一倡而三歎」이 출제된 적이 있고, 1891년 庭試의 시제로 나온 「愀然如復見文王」도 청묘시의 집전에서 나온 구절이다. 이처럼 청묘와 관련해서 과거 시험 시제가 자주 출제된 것은 당대 조정에서 이 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12) 성종 14년 계묘(1483) 1월 27일(경신). 「집의 김수광이 종묘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아뢰다」.
- 13) 순조 7년 정묘(1807) 8월 20일(기축). 「사직, 종묘, 영녕전, 경모궁에 討逆告由祭를 행하였다」.

## 2. 朝廷과 제사의 비유

### 1) ‘淸廟’를 이용한 ‘朝廷’의 비유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 문인들이 ‘淸廟’로 ‘太廟’나 ‘宗廟’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우리 문인들은 ‘淸廟’로 ‘朝廷’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 사례들을 살펴보자.

「윤후의 시권에 쓰다.」

「題尹侯詩卷」

병든 이가 시험 삼아 차 달여 마시고,  
대낮의 창가에 盧仝의 졸음 쫓아냈지  
갑자기 윤후가 찾아와서 시 보이니,  
읽을 때 봉황 소리 듣는 것 같았지.  
(中略)

病夫煎茶聊自試,  
午窓破却盧仝睡.  
忽蒙尹侯來示詩,  
讀之恍若聞鳳吹.

豫樟은 원래부터 큰 집의 재목이고,  
瑚璉은 淸廟의 그릇에 적당하지,  
뛰어난 자질은 세상에 전해지고,  
임금님 계도하니 측근에서 모셨지.  
(中略)

豫樟元是大廈材,  
瑚璉合爲淸廟器.  
魁梧蘊藉傳世美,  
啓沃宜居顧眄地.

예부터 明君과 良臣은 만나기 어려웠으니,  
노력하고 노력해서 신하 도리 다하기를.  
利見은 오로지 九五와 九二라네,  
다시 말하지만 利見은 九五와 九二라네.

明良契合古來非易事,  
努力努力盡臣職.  
利見九五惟九二,  
重爲告曰利見九五惟九二.<sup>14)</sup>

변계량(1369-1430)이 윤후의 詩卷에 지어준 시다. 윤후가 누구인지

14) 卞季良, 『春亭集』(한국문집총간 8), 「題尹侯詩卷」, 49면.

는 자세하지 않으나 임금을 측근에서 모실 기회를 얻은 듯하다. 그래서 그의 재주를 칭찬하면서 “瑚璉合爲清廟器”라고 했다. 이 구절은 앞의 “豫樟元是大廈材”와 대를 이루는데, ‘豫樟’이 ‘大廈’를 짓는 재목인 것과 같이 ‘瑚璉’은 ‘清廟’에 사용되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다. 『논어』에서 ‘瑚璉’이 ‘뛰어난 인재’로 비유되었던 예를 기억한다면<sup>15)</sup> 여기서 ‘清廟’는 ‘朝廷’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전부」

나는 어이 그리 안 좋은 때에 태어나,  
百六의 재앙을 만났단 말인가?  
물리침을 받고 멀리 쫓겨나,  
문득 내 고향을 내려다보네.

(中略)

질그릇은 清廟에 올려지고,  
瑚璉은 큰길에 버려지네.  
흑과 백은 지극히 구별하기 쉬운데도,  
도리어 현란하여 실상을 잃어버리네.

(中略)

산은 매우 험준하고,  
물은 광대히 흐르는데,  
河圖가 나오지 않아,  
우리의 道가 망했으니,  
그만 두자 그만 두자,  
난 大方에서 노니리라.<sup>16)</sup>

「歸田賦」

何吾生之不辰兮,  
遭百六之愆殃.  
罹擯斥而遷逝兮,  
忽臨睨夫舊鄉.

薦瓦缶於清廟,  
棄瑚璉於康莊.  
伊黑白兮至別,  
反眩瞽而實喪.

山之峩峩,  
水之洋洋,  
河不出圖,  
吾道其亡.  
已而已而,  
吾將遊乎大方.

인용문은 신희(1566-1628)의 「歸田賦」다. 이 글에서 신희는 좋지

15) 『論語』, 「公冶長」. “子貢問曰：賜也何如？子曰：女器也。曰：何器也？曰：瑚璉也.”

16) 申欽, 『象村稿』(한국문집총간 71), 「歸田賦」, 314면.

얇은 시기에 태어나 여러 재앙을 만났고 政敵의 배척과 불합리한 인사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어 聖君이 출현하는 징조라는 河圖도 나오지 않아, 우리 儒道는 망했으니 노자가 말한 ‘大方’에서 노닐겠다면서<sup>17)</sup> 귀향할 뜻을 밝혔다.

이 중 「청묘」를 활용한 부분은 “薦瓦缶於清廟”다. 이 구절은 이어지는 “棄瑚璉於康莊”과 대구를 이루면서 별 볼일 없는 질그릇은 숭고한 清廟에 사용되고 귀한 제기인 瑚璉은 큰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다고 묘사했다. 이것은 잘나지 못한 사람은 朝廷에 기용되고 자신처럼 뛰어난 인재는 외면 받는 朝廷의 불합리한 인사를 풍자한 것이다. 신희도 변계량의 경우와 유사하게 ‘瑚璉’으로 ‘뛰어난 인재’를 비유하면서 ‘清廟’로 ‘朝廷’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 2) ‘駿奔’을 이용해 ‘제사를 모시는 것’을 비유

“5대 조고 증 통정대부 병조참의 휘 耕 부군의 神主, 5대 조비 증 숙부인 이씨의 신주, 5대 조비 증 숙부인 정씨의 신주는, 親盡이 된 지 이미 오래되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예법상 埋奉해야 하겠기에 感愴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매봉을 하는 길일은 오는 3월 19일로 정했습니다. 奠物은 善道가 마련해 올릴 것이니, 내외의 여러 자손들이 모두 빠짐없이 모여서 제사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여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중략)

만약 나이가 어려서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 어른들이 자기 ‘駿奔의 공경’을 가지고 권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同宗

17) 『道德經』 卷下. “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無聲, 大象無形.”

18) 이 외에도 ‘清廟’를 가지고 ‘朝廷’을 비유한 예로, 黃玿, 『梅泉集』(한국문집총간 348), 「題梅泉集後(郝爾泰)」, 529면. “嗟乎先生生盛時, 當爲清明明堂詞.”; 金尙憲, 『清陰集』(한국문집총간 77), 「再次張內翰持國答詩韻」, 111면. “吾子文章擅妙齡, 罔罔瑚璉清廟姿.”; 金誠一, 『鶴峯集』(한국문집총간 48), 「挽鄭文峯子中」, 164면. “瑚璉薦清廟, 忽爲塵土委.” 등을 들 수 있다.

중에서 한 사람도 先王이 제정한 典禮의 罪人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禮로 단속한다는 말을 아올러 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러 어른들께서 두렵게 생각하여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략)”<sup>19)</sup>

인용문은 윤선도(1587-1671)가 지은 「五代祖考妣三位神主埋奉回文」의 일부다. 제사를 올릴 직계후손이 없어 埋奉을 해야 하는 神主가 있어서 친족들에게 돌린 글이다. 이 중 인용문 두 번째 단락의 ‘駿奔의 공경[駿奔之敬]’이 「청묘」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청묘」의 5~6구는 “對越在天, 駿奔走在廟.”로 하늘에 계신 분을 마주 대하듯 공경하고 태묘에서 제사를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윤선도는 이 중 ‘駿奔’만을 가지고 「청묘」에 담겨 있는 제사를 모신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효종대왕만사」

큰 도량은 하늘처럼 위에서 덮었고,  
깊은 仁은 만물에 봄기운을 주었네.  
잠룡으로 계실 때 원래 조짐이 있었으니,  
거북의 상서가 어찌 까닭 없었을까?  
(中略)

순임금은 효도해서 종신토록 사모했고,  
등세자는 여막살이 예를 지켜 순수했지.  
급하게 달려와 경건하게 제사 받들고,

「孝宗大王輓詞」

大度天同覆,  
深仁物與春.  
龍潛元有象,  
龜瑞詎無因.

舜孝終身慕,  
滕廬式禮純.  
駿奔虔享祀,

19) 尹善道, 『孤山遺稿』(한국문집총간 91), 「五代祖考妣三位神主埋奉回文」, 435면. “五代祖考贈通政大夫兵曹參議諱耕府君神主, 五代祖妣贈淑夫人李氏神主, 五代祖妣贈淑夫人鄭氏神主, 親盡已久, 主祀無人, 禮當埋奉, 不勝感愴. 埋奉吉日, 定於來三月十九日. 奠物善道當備進, 內外諸孫無遺畢會, 參祭同事幸甚. (中略)倘有年少, 不解事之人, 則諸尊其各勸, 以駿奔之敬何如? 願我同宗, 無一人, 爲先王典禮之罪人, 故不得不并告, 以齊之以禮之言矣, 諸尊惕念, 毋忽幸甚. (下略)”

훌륭한 업적은 비석에 새기리라. (中略)	鴻績勒貞珉.
성은에 조그만 보답도 하지 못하여, 대대로 녹을 먹는 것 다만 부끄러운데 활을 안고서 끝없는 恨만 일어, 눈물 닦으니 부질없이 수건 가득 적시네. <sup>20)</sup>	未效涓埃報, 徒慙世祿循, 抱弓無限恨, 雪涕謾盈巾.

인용문은 신익전(1605-1660)이 지은 효종(1619-1659)의 輓詞다. 이 글에서 신익전은 효종의 인품과 일화·순임금과 등세자의 효에 대한 기록·효종을 경건하게 제사 모시고 그의 업적을 비석에 새기겠다는 다짐·효종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묘사하고 있다. 이 중 ‘급하게 달려와 경건하게 제사 받들고[駿奔虔享祀]’ 구절에서 「청묘」의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윤선도의 인용문에서 마찬가지로 「청묘」의 6번째 구절인 “駿奔走在廟”에서 ‘駿奔’만을 가지고 제사에 분주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sup>21)</sup>

### 3. 對越在天의 응용

「청묘」의 5번째 구는 “對越在天”이다. 이 구절은 ‘하늘에 계신 분을 마주 대하고’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문인들은 이 구절 중 ‘對越’만을 이용해서 “對越在天”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20) 申翊全, 『東江遺集』, 「孝宗大王輓詞」, 한국문집총간 105, 23면.

21) 이 외에도 ‘駿奔’을 이용해서 ‘제사’를 비유한 예로, 鄭蘊, 『桐溪集』(한국문집총간 75), 「贈史曹參判曹公神道碑銘」, 248면. “鄉邦駿奔, 於薦苾馨”; 黃景源, 『江漢集』(한국문집총간 224), 「殷太師廟殿感懷」, 31면. “玉豆與具俎, 永世祀成湯. 粲彝駿奔走, 楹鼓肅鏗鏘.”; 趙穆, 『月川集』(한국문집총간 38), 「陶山書院奉安文」, 468면. “罇爵淨潔, 黍稷馨香. 凡在駿奔, 一心精白.”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는 이변이 근래에 없는 날이 없는데, 이 이변의 참혹함이 어찌 겨울 천둥보다 덜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人情은 심상하게 보아 넘기는 데에 태연해져 그것을 보고 재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對越하는 정성에 또한 끊어진 바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겨울 천둥이 치기를 태백성이 낮에 항상 나타나듯이 할 경우, 성상께서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지 않아 끝내 필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히 지내시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sup>22)</sup>

인용문은 1657년(효종 8) 11월 9일에 당시 대사간이었던 김수항(1629-1689)이 사간 이은상·헌납 이성항·정언 조운석 등과 함께 올린 차자의 일부다. 김수항은 낮에 태백성이 보이는 현상을 겨울에 천둥이 치는 것과 똑같은 災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효종은 겨울 천둥과는 달리 큰 피해가 없는 이 일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은 듯하다. 그러자 김수항은 임금의 ‘對越하는 정성[對越之誠]’에 끊어진 바가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 하늘을 조심하고 공경하는 임금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태백성이 낮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인데, 여기에 쓰인 ‘對越하는 정성[對越之誠]’은 「청묘」의 “對越在天”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임금이 太廟에 나아갔으니, 비오기를 빌기 위해서였다. 藥院의 여러 신하들이 請對하여 아뢰기를, “며칠 사이에 연달아 제사 지내는 일을 행하시니, 聖躬을 손상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攝行하게 하소서.” (중략) 부제조 이덕수가 말하기를,

“『춘추』에 ‘가뭄 때문에 거듭 큰 기우제를 행하였다.’ 했는데, 先儒가

22) 金壽恒, 『文谷集』(한국문집총간 133), 「諫院應旨劄」, 142면. “夫太白晝見之變, 近來無日無之, 此變之慘, 豈下於冬雷. 而人情恬於尋常, 視之不以爲異. 殿下對越之誠, 亦安保其無所間斷乎? 然則冬雷之發, 若如太白之常見, 竊恐聖心之戒懼不能如今日, 而終未必不爲之恬然也.”

이를 비난하기를,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서 제사를 자주 지낸다.’ 했으니, 대개 군주가 하늘을 섬기는 도리는 오직 마음으로 對越하는 데 있고 제사를 자주 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항상 제사를 자주 지내는 것으로써 경계를 삼아 왔다. 그렇지만 사람이 괴로운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를 부르게 되는 것이니, 지금 내 마음은 괴로운 고통일 뿐이 아니다. 태묘에 고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호소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변갈아 청하였지만, 임금이 끝내 듣지 않았다.<sup>23)</sup>

1734년(영조 10) 가을, 가뭄이 계속되자 영조는 태묘에서 연달아 기우제를 지냈다. 약원의 신하들은 영조에게 혹시나 잦은 제사에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직접 제사를 지내지 말고 다른 이에게 맡기라고 권했다. 반면 부제조 이덕수는 『춘추』의 구절을 거론하며 임금이 가뭄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제사만 자주 지내려 한다며 비판의 간언을 올렸다. 이 중 ‘하늘을 섬기는 도리는 오직 마음으로 對越하는 데 있다.〔事天之道，惟在方寸對越〕’는 그의 말은 「청묘」의 “對越在天”에서 가져온 것으로, ‘對越’만을 가지고 “對越在天”을 뜻하고 있다.

한 번 비가 내려 열흘 동안 개지 않더니, 아침 무렵에 또 큰비가 내렸다. 하교하기를, “내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 오늘 저물

---

23)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1734년) 8월 2일 乙巳 1번째 기사. 「비오기를 빌기 위해 태묘에 나아가다」. 上詣太廟，爲禱雨也。藥院諸臣請對奏曰：“數日之間，連行祀事，恐損聖躬，請攝行。”(중략) 副提調李德壽曰：“『春秋』以旱再行大雩，先儒譏之曰：‘不反躬而瀆祀。’蓋人君事天之道，惟在方寸對越，而不在瀆祀也。”上曰：“予亦常以瀆祀爲戒，而人有疾痛，必號父母，今予心不啻疾痛，不於太廟而於何籲告？”諸臣迭請，上終不聽。

넙에는 아마 개지 않겠는가.” 했는데, 조금 뒤에 짙게 깔렸던 구름이 점점 걷히고 오후가 되자 개었다는 快報가 있었다. 다음 날 賤臣이 또 경연에 올라 아뢰기를, “어제 날씨가 갠 징후를 미리 점치신 것은 참으로 對越의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宋景公이 한 생각을 잘하게 가지자 熒惑星이 옮겨 가는 상서로움이 있었으니, 人君이 된 자가 어찌 하늘을 공경하지 않겠는가.” 하였다.<sup>24)</sup>

『홍재전서』에 실린 서유방(1741-1798)의 기록이다. 1792년(정조 16) 어느 때에 비가 열흘 이상 지속되었다. 이에 정조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비 그치기를 기도한 지 오래되었으니 오늘 저물녘에는 날이 갠 것이라고 했고 그 말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서유방은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다음 날 경연에서 정조를 만났다. 그리고는 어제 날씨가 갠 것을 미리 점친 것은 ‘對越의 정성[對越之誠]’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조를 찬양했다. ‘對越의 정성’은 ‘하늘을 향한 정조의 정성’을 비유한 것인데 역시 「청묘」의 “對越在天”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對越在天”은 신하들이 임금에 권면하거나 칭찬하는 글에서 주로 발견된다. 다음으로 “對越在天”이 시에서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자.

「은거시서」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늘을 대하도다.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허물이 없게 되기 바랐네.  
아 거룩한 성군이시여,

「恩居詩序」

夙夜祗懼,  
對越在天.  
不愧屋漏,  
庶無咎罣.  
於皇聖哲,

24) 正祖, 『弘齋全書』, 「訓語(三)」, 한국문집총간 267, 426면. 一雨浹旬愷晴, 崇朝又大注. 教曰: “予爲民而禱久矣, 今晚庶其晴矣否?” 少頃, 密雲漸捲, 向午快報晴. 翌日, 賤臣又登筵奏曰: “昨日之預占晴候, 寔出對越之誠矣.” 教曰: “一念之善, 有星雲之祥, 爲人君者可不敬天乎.”

노인 봉양을 우선으로 하였네.	老老是先.
사방의 백성들 즐거워하니,	四方熙熙,
천만년토록 누리소서. <sup>25)</sup>	於千萬年.

1678년(숙종 4)에 허목(1595-1682)이 연로한 나이를 이유로 판총 추부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임금이 허목에게 집을 하사 하라는 명을 내렸다. 허목은 애써 사양했지만 임금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허목은 집이 완성되자 그 집을 ‘恩居’라고 이름 짓고 위 인용문의 시를 지었다. 시 전편의 내용은 숙종에 대한 찬양이다.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늘을 대하는 숙종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청묘」의 “對越在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對越在天” 구절은 주희(1130-1200)의 「敬齋箴」이 우리 문인들에게 알려진 이후 다양화된 모습으로 활용된다. 주희는 「경재잡」에서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라고 했다.<sup>26)</sup> 이 중 ‘對越上帝’는 ‘對越在天’을 활용한 구절로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경재잡」 전래 이후에는 ‘對越上帝’라는 말이 ‘對越在天’을 대신해서 쓰이기도 했고<sup>27)</sup> 앞의 두 글자만 단 ‘對越’로써 ‘對越上帝’나 ‘對越在天’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래에서 ‘對越’이 시에서 활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25) 許穆, 『記言』, 「恩居詩序」, 한국문집총간 98, 376면.  
 26) 朱熹, 『朱子大全』 卷85. “讀張敬夫主一箴, 掇其遺意, 作敬齋箴, 書之壁以自警云: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足容必重, 手容必恭(하략)” 이하 중국문헌의 원문은 문연각 사고전서전자판을 참고했다.  
 27) 鄭蘊, 『桐溪集』, 「元朝自警箴 并序」, 한국문집총간 75, 181면. “行必篤實, 言必信忠, 防慾如城, 除忿如篲, 潛心古訓, 對越上帝, 未發之前, 求其氣象, 既發之後, 戒其邪枉.”; 洪汝河, 『木齋集』, 「坐箴」, 한국문집총간 124, 444면. “正冠危坐, 對越上帝, 淨几穿榻, 毋跛以倚, 先覺有戒, 坐忘成馳, 君子欽欽, 儼然若思.” 등. 이 외에도 한국고전종합 DB에서 ‘對越上帝’를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문인들이 이 구절을 자신의箴이나 타인의 銘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敬자에 대하여, 두 수」 중 첫 번째 수. 「敬字二首」中其一.

마음 먼저 향해야 敬이 그제 생겨나, 心先有嚮敬纔生,  
長老와 君親에 대해 예로써 받드네. 長老君親禮以行.  
고요한 가운데 일 없다고 말을 마라, 莫道靜中無一事,  
마음 가라앉혀 하늘 대함이 바로 功程이니.<sup>28)</sup> 潛心對越是功程.

정약용(1762-1836)의 字義詩 중 '敬'자에 대한 시다. 정약용은 마음이 항상 '경'을 향하고 있어야 '경'이 비로소 생겨난다고 말한다. 그렇게 내 마음이 '경'을 품고 있어야 어른·노인·임금·부모에게 禮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3구에서는 번잡하지 않고 고요할 때에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對越'하는 것이 功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對越'은 "對越上帝"에서 가져온 것이다. '潛心'과 함께 '對越'을 쓴 것으로 보아 정약용은 『시경』이 아닌 주희의 「경재잠」을 염두에 두고 4번째 구를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약용은 이 시에서 '慎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 없이 혼자 있을 때면 게을러지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 쉽다. 그런 순간에도 '하느님이 나를 마주하고 계시다.[對越]'고 생각한다면 감히 나태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약용은 「청묘」의 '對越'을 활용한 주희의 「경재잠」 구절을 이용해서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4. 濟濟多士의 활용: 뛰어난 인재를 비유

「濟濟多士」는 「청묘」에서 "많은 선비들이 문왕의 덕을 받들어[濟濟多

28) 丁若鏞, 『與猶堂全書』(한국문집총간 281), 「敬字二首」, 157면.

士, 秉文之德.]”라는 문맥으로 쓰였다. 그런데 “濟濟多士”는 <大雅>의 「文王」과 <魯頌>의 「泮水」에도 등장한다. 이 중 「문왕」에서는 “(선비들을) 나라에서 능히 길러내니 주나라의 기둥이구나. 많은 선비들이 있어 문왕의 마음 편안하시리.[王國克生, 維周之楨. 濟濟多士, 文王以寧.]”라는 문맥에서 쓰였다. 또 「반수」에서는 “많은 무사들이 덕스런 마음을 넓히고 늠름하게 출정해서 동남쪽의 오랑캐를 다스렸다.[濟濟多士, 克廣德心. 桓桓于征, 狄彼東南.]”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이 중 「청묘」와 「문왕」의 “濟濟多士”는 주나라 문왕을 돕는 선비들을 가리키고 「반수」의 “濟濟多士”는 노나라 희공을 돕는 武官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濟濟多士”는 문왕과 희공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우리 문인들은 “濟濟多士”로 뛰어난 인재를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前略)

敬義를 함양하고	涵養敬義.
性理에 침잠했습니다.	沈潛性理.
다급한 때에도	造次之間,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手不釋卷.
선각자를 본받았으며	私淑先覺.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誨人不倦.
많은 선비들이	濟濟多士,
그의 덕에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頗薰其德.

(後略)<sup>29)</sup>

인용문은 鄭復顯이 吳健(1521-1574)을 추모하며 지은 제문의 일부다. 오건은 11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가난해서 스승을 모실 수도 없는

29) 吳健, 『德溪先生年譜』 卷1(한국문집총간 38), 「祭文(鄭復顯)」, 186면.

형편이었다. 하지만 학문에 힘을 써서 대과에 합격한 뒤 여러 요직을 거쳤다. 1571년 이조좌랑으로서 경연에 참여했을 때에는 학문의 길은 窮理와 居敬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복현은 이런 오견의 생애를 1~4구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어 5~6구에서는 권력에서 벗어나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썼던 그의 생애를 표현했다. 7~8구에서는 주변의 뛰어난 선비들이 그의 덕성에 감화받았다고 했다. 7~8구인 “濟濟多士, 頗薰其德”은 「청묘」의 “濟濟多士, 秉文之德”에서 가져와서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부의 할 일 아직도 끝내지 못했는데	男兒事業未渠央,
지난 자취 살펴보면 그야말로 일장춘몽.	往跡眞同夢一場,
양씨의 五噫歌여 어쩔 그리 아픈가?	梁氏五噫何太苦,
士師가 세 번 쫓겨남은 원래가 당연한 걸.	士師三黜固其常,
막다른 길에 몰릴수록 진전되는 문장 실력.	途窮轉覺文章進,
숨어 사는 몸이라 道義 드러나는 것 싫다네.	身隱還嫌道義彰,
우린 그저 오래도록 노닐면 그뿐.	我輩只應長漫浪,
청묘의 많은 선비들 훌륭한 인재로 충분하니. <sup>30)</sup>	清朝濟濟足才良,

인용문은 장유(1587-1638)의 7언율시 작품 중 세 번째 수다. 3구의 五噫는 후한 초기에 梁鴻이 관리들의 사치와 방탕을 풍자해서 지었던 「五噫歌」를 말한다.<sup>31)</sup> 4구의 ‘士師三黜’은 『논어』 微子편의 “유하혜가 사사가 되었다가 세 번 쫓겨났다. 사람들이 ‘자네 떠날 만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니, ‘도를 곧게 펴서 사람을 섬기면 어디를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는가? 도를 굽혀 사람을 섬기면 어찌 반드시 부모의 나라를 떠나

30) 張維, 『谿谷先生集』 卷30(한국문집총간 92), 「清陰丈人以七言八句五章寄贈, 辭調兼美, 蔚然有唐人風致, 客中諷詠, 羈愁頓釋, 攀次斐然, 用宣伊鬱, 兼伸謝忱.」, 488면.

31) 「五噫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陟彼北芒兮噫, 顧覽帝京兮噫. 宮室崔嵬兮噫, 人之劬勞兮噫. 遼遼未央兮噫.” 『後漢書』, 「逸民傳·梁鴻」

겠나?”라는 구절에서 가져왔다.<sup>32)</sup>

전고로 사용된 「오희가」와 ‘사사삼출’의 고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 시는 장유가 誣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던 1612년 무렵이나 羅萬甲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나주목사로 좌천되었던 1629년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8구의 “清朝濟濟”는 뛰어난 인재를 비유하기는 하지만 조정에 남아있는 끈지 않은 선비들을 비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濟濟’는 「청묘」의 “濟濟多士”에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前略)

처음부터 발을 디딘 화려한 宦路,	始躡華塗,
응대하는 文辭는 오직 공의 몫	獨膺辭命,
황제의 조정에서 奏達하면서	敷奏帝庭,
얼마나 통쾌하게 나라의 誣陷을 씻었던가	快釋邦誣,
이에 秩宗의 관직을 임명받고	迺命秩宗,
묘당의 국가 대계 아울러 참여하며	亦參廟謨,
문단을 주관하는 맹주가 되어	乃典文盟,
많은 선비의 모범이 되었네.	式刑多士.

(後略)<sup>33)</sup>

인용문은 이식(1584-1647)이 이정구(1564-1635)를 추모하며 지은 묘지명의 일부다. 이정구는 증광문과에 급제해서 첫 관직을 승문원에서 시작했다. 이후 文才를 인정받았는데, 그의 문재가 가장 빛을 발했던 사건을 3~4구에서 서술했다.

4구의 “快釋邦誣”는 1598년에 명나라 병부주사 정응태가 조선에서 왜

32) 『論語』, 「微子」. “柳下惠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33)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6(한국문집총간 88), 「月沙李相國墓誌銘」, 364면.

병을 끌어들이며 중국을 치려 한다고 자기 나라에 무고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정구가 「朝鮮國辨誣奏文」을 지어 명나라에 가서 정응태를 파직시킨 일을 가리킨다.

5구의 '秩宗'은 순임금 때 있었던 9官 중에 三禮를 담당했던 관직의 이름이다. 이정구는 예조판서에 재임하면서 종묘의 일을 관장했었다. 이식은 그가 맡았던 예조판서의 직분을 '秩宗'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예조판서로서 많은 인재들과 함께 종묘에서 예를 올렸던 이정구의 모습을 "式刑多士"라고 묘사했다. 이는 「청묘」의 "濟濟多士"에서 '多士'를 가져와서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濟濟多士'로 뛰어난 인재를 비유한 구절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조익(1579-1655)은 「牙山五賢書院祝文」에서 이황을 추모하며 "낙민의 학문을 이어받고서 산림에 살지게 은둔하셨도다. 많은 선비가 귀의하는 분에게 공경히 향사를 올리나이다.〔學紹洛閩，遯肥山林。多士依歸，享祀是欽〕"라며 "濟濟多士"의 '多士'로 이황을 존경했던 뛰어난 선비들을 비유했다.<sup>34)</sup>

또 장유는 「題臺監契會圖」라는 작품에서 "청명한 조정 濟濟多士인 전 중의 관료들, 위엄 서린 법부 주후의 관을 썼네.〔清朝濟濟殿中班，法府峩峩柱後冠〕"<sup>35)</sup>라며 조정의 관료들(殿中班)을 뛰어난 인재로 묘사하기도 했다.

## 4. 나오는 말

이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시경』의 「청묘」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34) 趙翼, 『浦渚先生集』 卷29(한국문집총간 85), 「牙山五賢書院祝文」, 518면.

35) 張維, 『谿谷先生集』 卷30(한국문집총간 92), 「題臺監契會圖」, 498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청묘」는 종묘 제례에서 사용되던 『시경』 〈頌〉의 첫 번째 작품으로, 그 내용은 문왕을 찬양하면서 제후들이 제사를 모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묘」는 주로 조정과 제사를 비유하는 데 활용되었다. 「청묘」의 표현 중 제목이기도 한 ‘淸廟’는 조정을, “於穆淸廟”는 경건하고 조화로운 모습을 상징하며, 이는 주로 논어에서 ‘뛰어난 인재’로 사용된 ‘瑚璉’과 함께 쓰였다. 이러한 사용 예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다수 발견되며, 특히 조선 중종, 영조, 정조 등 여러 군주들이 “청묘”를 인용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제례를 엄숙하게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駿奔’은 제사를 모시는 행위를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다. 「청묘」의 “駿奔走在廟”에서 ‘준분’만을 추출해서 제사를 모시는 모습을 간결하게 묘사하였으며, 이는 주로 제례와 관련된 문헌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셋째, “對越在天”은 신하들이 임금에 권면하거나 칭찬할 때 자주 활용되었다. 이 표현은 신하들이 임금을 하늘에 비유하며 경의를 표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었고, 이는 조선시대 문집과 실록에서 흔히 발견되었다.

넷째, 「청묘」의 “濟濟多士” 구절은 뛰어난 인재를 비유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표현은 “제제다사” 전체를 사용하거나 ‘濟濟’나 ‘多士’만을 사용하여 인재의 풍부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쓰였다. 예를 들어, 문왕을 돕는 선비들이나 희공을 돕는 무관들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조선의 문인들이 인재를 칭송하는 문헌에서 자주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묘」는 조선시대의 왕실과 조정 행사, 문인들의 시문 창작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조선왕조실록과 다양한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이는 「청묘」가 가진 상징성과 문학적 가치가 조선시대의 유학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도 「청묘」와 같은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고전 문학과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문연각 사고전서전자판

조선왕조실록사이트(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金尙憲, 『淸陰集』(한국문집총간 77), 민족문화추진회, 1991.  
金誠一, 『鶴峯集』(한국문집총간 48), 민족문화추진회, 1989.  
金壽恒, 『文谷集』(한국문집총간 133), 민족문화추진회, 1994.  
李植, 『澤堂先生別集』(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1992.  
卞季良, 『春亭集』(한국문집총간 8), 민족문화추진회, 1990.  
申翊全, 『東江遺集』(한국문집총간 105), 민족문화추진회, 1993.  
申欽, 『象村稿』(한국문집총간 71), 민족문화추진회, 1991.  
吳健, 『德溪先生年譜』(한국문집총간 38), 민족문화추진회, 1989.  
尹善道, 『孤山遺稿』(한국문집총간 91), 민족문화추진회, 1992.  
張維, 『谿谷集』(한국문집총간 92), 민족문화추진회, 1992.  
丁若鏞, 『與猶堂全書』(한국문집총간 281), 민족문화추진회, 2002.  
鄭蘊, 『桐溪集』(한국문집총간 75), 민족문화추진회, 1991.  
正祖, 『弘齋全書』(한국문집총간 267), 민족문화추진회, 2001.  
趙穆, 『月川集』(한국문집총간 38), 민족문화추진회, 1989.  
許穆, 『記言』(한국문집총간 98), 민족문화추진회, 1992.  
洪汝河, 『木齋集』(한국문집총간 124), 민족문화추진회, 1994.  
黃景源, 『江漢集』(한국문집총간 224), 민족문화추진회, 1999.  
黃玿, 『梅泉集』(한국문집총간 348), 민족문화추진회, 2005.

- 김수경(2021), 「이정 시경학의 조선시대 수용 양상: 조선시대 시경학에서의 정자학과 주자학의 길항」, 『태동고전연구』 46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79~212면.
- 김수경(2018), 「한국 시화에서의 『시경』의 수용과 운용」, 『한문학논집』 50권, 근역한문학회, 39~77면.
- 오종일(2004), 「시경 「관저」편과 치국 평천하」, 『공자학』 11권, 한국공자학회, 77~101면.
- 이병찬(1999), 「『시경』 「관저」 장에 대한 한 중의 견해 비교 고찰」, 『한문학논집』 17권, 근역한문학회, 187~206면.
- 이상봉(2020a), 「〈關雎〉의 수용 양상과 주요 논의에 관하여 -조선시대 문집과 실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56집, 근역한문학회, 199~224면.
- 이상봉(2020b), 「『시경』 〈鹿鳴〉의 수용 양상에 대하여: 조선시대 한문산문과 실록류를 중심으로」, 『동방학』 43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53~178면.
- 이상봉(2023), 「『詩經』·「螽斯」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經學』 5, 한국경학학회, 81~106면.
- 이상봉(2024), 「『시경』·「문왕」의 수용양상에 대하여 - 조선시대 문집을 중심으로」, 『동방학』 50집, 143~172면.
- 이상봉·유영옥(2022a), 「『詩經』 「卷耳」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63집, 근역한문학회, 55~75면.
- 이상봉·유영옥(2022b), 「『詩經』 「樛木」의 활용양상과 몇 가지 논의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3집, 동양한문학회, 155~181면.
- 정원호(2015), 「조선시대 외교현장의 『시경』 활용 고찰」, 『중국학』 51집, 대한중국학회, 25~38면.
- 정원호(2014), 「『朝鮮王朝實錄』에 인용된 『詩經』〈文王〉편의 활용사례 고찰」, 『中國語文學』 66집, 嶺南中國語文學會, 29~53면.
- 진재교(2008), 「심대윤의 ‘이남’과 ‘관저’의 설시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19집, 우리한문학회, 1293~1319면.

A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The Book of Odes(詩經)』・「Ancestral shrine(清廟)」:  
Focusing on the Records of Literary Works and Annals

Lee, Sang-B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Korean literati utilized 「Ancestral shrine (清廟)」 from 『The Book of Odes(詩經)』. 「Ancestral shrine」 is the first work of 『The Book of Odes(詩經)』 in the 〈Encomium(頌)〉 section, used in the ancestral rites of the royal shrine. The content of 「Ancestral shrine」 praises King Wen(文王) and depicts the scene where feudal lords conduct rituals.

First, 「Ancestral shrine」 was mainly used to metaphorically describe the court and rituals. The term 「Ancestral shrine」, which is also the title, symbolizes the court, and “Ah, a deep, profound and Ancestral shrine.(於穆清廟)” represents a reverent and harmonious image. This expression was often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term “Holyeon(瑚璉)”, meaning an outstanding talent, as seen in the Analects. Such usage examples are frequently fou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particularly by monarchs such as King Jungjong,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who cited 「Ancestral shrine」 to justify their rule or to record the solemn conduct of rituals.

Second, the term ‘Run fast(駿奔)’ was used to metaphorically describe the act of conducting rituals. The phrase “It’s very busy at the shrine.(駿奔走在廟)” from 「Ancestral shrine」 was simplified to ‘Run fast’ to concisely depict the bustling activity of conducting rituals. This usage frequently appeared in literature related to ancestral rites.

Third, the expression “Face to face with the person in heaven.(對越在天)”

---

\* Lectur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E-mail: krishrama@hanmail.net

was often used by subjects to advise or praise the king. This expression, which likens the king to the heavens and shows reverence, was commonly found in Joseon-era anthologies and annals.

Fourth, the phrase “Lots of crowded gentlemen(濟濟多士)” from 「Ancestral shrine」 was used to metaphorically describe outstanding talents. This expression was used either in its entirety or by using parts such as ‘Lots of(濟濟)’ or ‘Crowded gentlemen(多士)’ to symbolically represent the abundance of talent. For instance, it was used in contexts referring to the scholars assisting King Wen or the military officials assisting Duke Hui of Lu. This usage was common in literature where Joseon literati praised talents.

### Key Words

The Book of Odes(詩經), Ancestral shrine(清廟), Encomium(頌), Run fast(駿奔), Face far away(對越), Lots of crowded gentlemen(濟濟多士)

논문접수일: 2024.11.26, 심사완료일: 2024.12.05, 게재확정일: 2024.12.18

